

#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 The Relation between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Children's Maladjusted Emotional Behavior

김 혜 련  
Kim, Hye Ryun  
이 재 연\*\*  
Lee, Jae Yeon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verbal abuse by parents and children's maladjusted emotional behavior. The sampling consisted of 628 children in 16 classes out of every three elementary schools and one middle school.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Verbal Abuse Measure, Parent-to-child violence items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Scale, and Socioeconomic Status. Methods applied to data analysis were multiple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and logistic curve graphic display.

The major findings were ; (1) Of all subjects, almost 20% experienced at least one instance in which they were victims of verbal abuse during the year covered by this study. (2) As the amount of physical abuse by parents increased the verbal abuse by parents increased. The older children experienced more verbal abuse than the younger ones. (3) Verbal abuse by parents was more highly related to maladjusted emotional behavior of the children than physical abuse by parents. (4) Regardless of the physical violence by parents, verbal abuse by parents was associated with maladjusted emotional behavior of children. Children who were subjected to both verbal and physical abuse were more strongly related to withdrawal, hyperactivity, and obsessive-compulsions than children experienced either one or the othe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학대는 인류와 더불어 모든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였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

\* 본 논문은 1994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도 학대의 개념규정 및 유형과 범주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정작 요구되는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작업의 진전에 난점에 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학대의 구분이 뚜렷한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는 많이 연구되었고, 정의를 내리기가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 영역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Creighton, 1988; Pagelow, 1984).

아동학대의 결과를 보면, 학대당한 아동들은 슬픔, 불행감을 느끼며 심각한 정서장애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아동은 자아개념이 결여되고 사회적으로 퇴행하여 장차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장애를 받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권자영, 1991; 김정준, 1986; 연진영, 1992; Hilberman & Munson, 1978; Hoffman-plotkin & Twentyman, 1984) 학대받으면서 성장한 아동들이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도둑질, 공격적 행동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반 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이 언어적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연진영, 1992; Bousha & Twentyman, 1984; Ney, 1987). 고성혜(1992)에 따르면 폭언은 보다 해악한 행동의 씨앗이 되므로 폭언의 사용이 용인되거나 습관화될 경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진영(1992)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태 및 영향을 보고한 문헌에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유형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

보다도 우리가 흔히 학대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언어적 학대 및 방임이며, 이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가지는 것은 언어적 학대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Ney(1987)는 언어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아동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적 학대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신체적 학대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범주를 신체적 학대보다 언어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학대의 독립적인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범주에 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정서적 학대의 하위 범주에서 정의상 논란이 적고 구분상 혼란이 덜한 '언어적 학대'의 용어와 그 범주를 사용하여, 신체적 학대와 구분을 시도하도록 한다.

한편,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요보호 아동이나 임상적 중례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 이외에 학교, 사회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인 아동학대는 아동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아동양육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에 의한 학대 연구가 보다 우선되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로부터 받는 언어적 학대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의 발생가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와의 중복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 연관된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언어적 학대의 주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의 유무 및 경중에 따른 3 집단의 아동들 대상으로 각각의 수준에 따른 언어적 학대의 효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 2. 연구문제

1. 부모의 언어적 학대 발생빈도는 어떠한가?
2.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제변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제변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가장 관련이 큰 변인은 무엇인가?
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상호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Ⅱ. 이론적 배경

### 1. 언어적 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논란과 개념규정의 차이로 인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적(정신적) 학대에 관한 개념정의는 다른 학대의 정의와 달리 사실상 더 어렵고 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고성혜는 “아동을 정서적, 지적 불구로 만들고, 아동의 심리적 자아에 상

처를 입히며, 가장 오래 지속되어 해악을 끼치는 주 양육자의 고질적인 행동패턴”으로 정서적 학대를 정의하고 있다(1992, p. 12). 이에 덧붙여,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에게 협박을 가하고, 언어적 공격을 일삼고,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 주거나 감금하는 등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처우형태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Straus의 정의에 따르면 “언어적/상징적(Verbal/Symbolic) 공격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의사소통, 혹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을 말하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일 수 있고,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일 수 있다”고 하여 언어적 공격을 정서적 학대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1991, p. 224).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정서적 부당한 취급’, ‘심리적 부당한 취급’ 등과 같은 용어들이 정서적 학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모두 비신체적 학대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에 관한 의미로서 언어적 학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허남순(1993)은 정신적 학대의 범주안에 폭언을 포함시키고 있고, 연진영(1992)도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에서 언어적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위의 연구들은 모두 언어적 학대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보다 구체적인 언어적 학대 개념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는 고성혜(1992)는 정서적 학대 영역에 언어적 학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언어적 학대를 구분하는데 있어 6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부모의 불행 원인을 자녀에게 돌리는 말로서 ‘원망적인 언어’와 불안감 조성,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위협적인 언어’,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비아냥거림의 ‘경멸적인 언어’ 그리고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부감을 표출하는 ‘거부적인 언어’,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적대적인 언어’로 나타내고 있다.

언어적 학대에 관한 개념정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등이 비신체적 학대 영역으로서 통합적 합의없이 혼합되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언어적 학대를 “아동학대 유형 중 비신체적 학대로서,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상해를 줄 수 있는 부모의 의사소통 혹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원망적, 위협적, 경멸적, 거부적, 적대적 언어를 통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언어적 학대와 관련변인

아동학대와 관련된 변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사회계층이 낮은 경우에 나쁜 주거환경, 열악한 의료서비스와 영양상태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률이 높았다(고성혜, 1989; 신영화, 1986; Gelles & Straus, 1979; Smith, 1984).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실태를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고(김혜영, 1989; 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Gil, 1971), 빈곤할수록(김광일 등, 1987; 김정준, 1986)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아동학대에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닌 가족원

이 이루어 가는 화합도나 분위기라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연진영, 1992).

또한, 아동의 성별을 관련변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학대유형에 따라서도 그 연구결과가 다르다. Justice와 Justice(1976)는 아동의 성별은 아동학대를 설명하는 중요변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Kinard(1979), Gelles와 Straus(1979)는 모든 연령층에서 여아보다 남아가 학대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성별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더욱 미흡하다. 일반 아동의 경우,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신영화, 1986; 고성혜, 1989). 또한 아동의 성은 심리적 학대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Claussen & Crittenden, 1991)가 있는 반면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언어적 공격을 더 많이 받았다는 보고(Straus, 1991)도 있다.

성별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와 아동의 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 역시 일관성이 없다. Mario(1983)는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의 연령이 신체적 학대아의 연령보다 평균적으로 높다고 밝힘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따라 학대아의 연령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Claussen와 Critten(1991)는 아동의 연령은 심리적 학대와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 언어적 학대의 관련변인으로서 특별히 부모의 신체적 학대를 살펴볼 수 있다. 보통, 일반인 중에는 잠재된 공격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여 해소하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언급하기도 한다. 즉 공격적 언어의 사용이 일종의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게되어 신체적 학대의 발생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결국 신

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과는 부적인 상관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Martin, Schumm, Bugaighis, Jurish와 Bollman(1987)은 상식적 수준의 정화가설은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성혜, 1992). 또한 가족간의 공격성을 다룬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언어적 공격성이 심할수록 신체적 공격의 가능성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traus, 1992). 또한 심리적 학대는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시에 나타난다는 입장도 있다(Claussen & Crittenden, 1991; Egeland, Sroufe & Erickson, 1983; Garbarino & Vondra 1987; Herrenkohl, Herrenkohl & Egolf, 1983).

### 3.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동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대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것으로서, 공격성, 위축, 좌절, 정서적 부적응, 반사회적 행동, 심한 애착 등을 나타낸다(Crittenden, 1985b, 1988; Hart, Germain & Brassard, 1987; Main & George, 1985; Rohner, 1980). 아동에 대한 언어적 공격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공격적인 언어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연진영, 1992; Bousha & Twentyman, 1984; Ney, 1987; Ney, Moore, Mcphee & Trought, 1986).

학대받은 아동은 공격적, 충동적이고 도전적, 반항적, 파괴적이며, 잔인하고 거짓말과 도벽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특성을 보인다. Kinard(1982)는 그의 연구에서 5~10세의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집단에 대한 정

서적 적응 상태를 밝혔는데 주로 동료집단에 대한 공격행위, 과잉활동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한다. 김정준(1987)은 저소득층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유아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학대받은 유아의 60% 이상이 반사회적 행동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김광일, 고복자(1987)의 연구에서도 부모에게서 구타를 경험한 아동이 구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친구와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특성을 보였다. 최윤라(1988)의 연구에서도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받지 않은 아동보다 공격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특성에 있어 언어적 학대의 영향력을 분리시켜 연구한 문헌들은 거의 없다.

또한, 학대 아동은 내향적 행동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권자영(1991)의 연구에 따르면, 학대가 심할수록 아동은 사회적 위축, 정서불안, 강박, 우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연진영(1992)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의 부주의나 소심증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유형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보다도 흔히 학대라 생각하지 않기 쉬운 언어적 학대와 방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아동의 부주의나 소심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연진영(1992)은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체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으며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관심을 끌려고 하며 친구가 없다. 학대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감정이입 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최윤라, 1988)가 보고된 바 있다. 하정희(1993)는 학대적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력의 관계에서 대부분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Straus

(1991) 역시 부모에 의한 언어적 공격이 아동의 대인관계문제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의 특징으로서 Brenner(1984)는 또래관계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외되고, 자기파괴적이고 때로는 수동적이며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연구에서 보여지는 포괄적 범위에서 본 학대의 영향과는 차이점을 달리 발견할 수 없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일반 아동으로서 연령 및 성별, 계층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국민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남녀 아동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고, 연구대상자로서 부모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형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령기 아동의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선정에 있어 계층간 편향성을 지양하기 위해 경합, 일반, 준특수로 구분되는 국민학교 3개교와 일반 1개 남녀공학인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국민학교는 각 학년별로 2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고 중학교는 4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모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16학급 아동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성

단위:명(%)				
성별/학년	국 4	국 6	중 2	전체
남자	109(34.8)	112(35.8)	92(29.4)	313( 49.8)
여자	113(35.9)	114(36.2)	88(27.9)	315( 50.2)
전체	221(35.4)	226(35.9)	180(28.7)	628(100.0)

<표 2> 연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

		단위:명%	
		아 버 지	어 머 니
연 령	20-30세 미만	0( 0)	2( .3)
	30-40세 미만	138( 22.0)	383( 61.0)
	40-50세 미만	438( 69.7)	233( 37.1)
	50세 이상	56( 8.3)	10( 1.6)
	계	628(100.0)	628(100.0)
학 력	무 학	4( .6)	5( .8)
	국민학교 중퇴, 졸업	41( 6.5)	61( 9.7)
	중 학교 중퇴, 졸업	62( 9.9)	116( 18.5)
	고등학교 중퇴, 졸업	239( 38.1)	294( 46.8)
	대 학교 중퇴, 졸업	236( 37.6)	145( 23.1)
	대학원 이상	46( 7.3)	7( 1.1)
계	628(100.0)	628(100.0)	
직 업	무직(주부)	10( 1.6)	405( 64.5)
	단순노동	41( 6.5)	41( 6.5)
	반숙련직	19( 3.0)	39( 6.2)
	숙련직	92( 14.6)	11( 1.8)
	판매직	148( 23.6)	81( 12.9)
	사무직	155( 24.7)	39( 6.2)
	관리직	111( 17.7)	6( 1.0)
	전문직	52( 8.3)	6( 1.0)
계	628(100.0)	628(100.0)	

## 2. 측정도구

### 1) 언어적 학대 측정도구

언어적 학대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 혹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부모의 언어사용 유형을 아동의 언어적 학대에 관한 제연구(고성혜, 1992; 신영화, 1986)를 토대로 연진영(1992)이 제작한 15개 문항의 언어적 학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된 예제에서 나타난 말들을 지난 일년동안 들은 경험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범주는 1년에 ‘한번도 없었다’, ‘1회’, ‘2~6회’, ‘한달에 1~3회’, ‘1주일에 1~3회’로 나누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총 15점에서 75점의 점수분포가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다. 또한 부모 중 언어적 학대의 주 행위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행위자를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렇게 3가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9이다.

### 2) 신체적 학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가 제작한 갈등해결척도(Conflict Tactics Scale:CTS)의 폭력척도를 변안·수정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진영(1992)이 개발한 신체적 학대 척도의 문항 내용을 참고로 하였다. Straus(1979)의 CTS 항목의 신체적 학대 등급 구분을 근거로 하여 학대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첫번째 유형은 가벼운 정도의 학대(輕度학대)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빈도에 따라 응답범주를 CTS의 7개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5개 척도로 축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으로 하여금 문항의 예제와 같은 일을 지난 1년동안에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를 생각하여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게끔 하는 것으로 ‘한번도 없었다’, ‘1회’, ‘2~6회’, ‘한달에 1~3회’, ‘1주일에 1~3회’로 나누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총 15점에서 75점의 분포를 보이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다. 신체적 학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측정도구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측정도구로서는 Achenbach(1978)가 제작한 아동행동에 관한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와 Quay(1972)가 제작한 정서적 부적응 질문지를 참고로 김영숙(1988)이 제작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5개의 하위요인 즉,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으로서 각 요인마다 10개의 문항씩 총 5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해 김영숙(1988)이 보고한 Cronbach  $\alpha$  계수에 의한 신뢰도 검증결과는 위축이 .82, 과잉 .81, 공격 .81, 퇴행 .79 그리고 강박의 경우 .80이다. 응답은 범주형으로서 ‘그렇다’에 1 ‘아니다’에 0으로 코딩하여 점수는 확률로 처리되었다. 즉,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5가지 유형은 각각 확률 점수 .0에서부터 1.0에 이르기까지의 범위로 나

타나는데 1.0에 가까울수록 정서적 부적응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도구(Socio-economic Status:SES)

본 연구에서는 김연화(1989)가 제작한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8개 영역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최하 8점부터 최고 47점까지로 수량화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점수분포는 11점부터 42점까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1993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학급 담임 선생님의 협조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20분-30분이었다. 7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오기,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한 9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28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의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다. 언어적 학대와 제 변인과의 관계 및 그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언어적 학대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신체적 학대와 연령 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SES) 점수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성(Sex)을 가변수(dummy variable)로 포함하

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 변인들의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신체적 학대의 3 수준에 따른 언어적 학대의 효과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부모의 언어적 학대 발생빈도

언어적 학대 15개 항목에 대한 아동의 응답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항목 중 가장 많은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꼴도 보기 싫다’의 거부적 언어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40.4% 가량이 이런 말을 듣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개만 못한 것, 멍청한 것, 병신같은 것’이나 ‘이 웬수야’, ‘학교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해라’ 등의 주로 경멸적 언어에 해당하는 표현들인데, 지난 1년동안 30% 이상의 아동이 이와같은 언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순위 1, 2, 3을 차지하고 있는 문항에서는 심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한달에 1~3회 이상의 경험을 보고한 아동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 5~10%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멸적 언어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 경험한 아동은 총 응답자의 29%에 해당했으며, 거부적 언어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10%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경멸적 언어에 해당하는 문항(순위 2, 3, 4, 5,



6)들은 적대적 언어에 해당하는 문항(순위 9, 10, 13, 14, 15)들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써 우리사회 일반 가정의 부모들은 적대감을 표출하는 언어보다 아동에게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멸적 언어를 보다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개

문항 중에서 1번이상 경험한 아동의 문항별 빈도수를 평균한 백분율은 20%로 나타났는데, 결국, 대상아동의 20%가 지난 1년 동안 언어적 학대를 적어도 한번의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언어적 학대 발생빈도(N=628)

단위:명(%)

문항	지난 1년 동안에 몇번?					평균	1회이상 경험
	한번도 없었다	1회	2-6회	한달에 1-3회	1주일에 1-3회		
8. 꼴도 보기 싫다	374(59.6)	115(18.3)	96(15.3)	26(4.1)	17(2.7)	1.72	254(40.4)
1. 깨만못한 것, 명청한것 등의 욕	442(70.4)	60( 9.6)	68(10.8)	38(6.1)	20(3.2)	1.62	186(29.6)
7. 이 웬수야	425(67.7)	89(14.2)	73(11.6)	30(4.8)	11(1.8)	1.58	203(32.3)
6. 학교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해라	421(67.0)	103(16.4)	75(11.9)	20(3.2)	9(1.4)	1.55	207(33.0)
12. 으이그, 돌머리(대가리)같으니	463(73.7)	80(12.7)	50( 8.0)	21(3.3)	14(2.2)	1.43	165(26.3)
10. 너보다 못한 애는 하나도 없어	493(78.5)	68(10.8)	48( 7.6)	13(2.1)	6(1.0)	1.36	135(21.5)
11. 너는 집안의 골치덩이야	504(80.3)	70(11.1)	31( 4.9)	17(2.7)	6(1.0)	1.32	124(19.7)
9. 엄마(아빠)도망가 버릴꺼야	496(79.0)	80(12.7)	42( 6.7)	7(1.1)	3(0.5)	1.31	132(21.0)
13. 집 나가 버려	529(84.2)	58( 9.2)	30( 4.8)	9(1.4)	2(0.3)	1.24	99(15.8)
2. 너죽고 나죽자 나가 죽어라	539(85.8)	47( 7.5)	27( 4.3)	10(1.6)	5(0.8)	1.24	89(14.2)
3. 너만 없으면 살겠다	554(88.2)	33( 5.3)	22( 3.5)	11(1.8)	8(1.3)	1.22	74(11.8)
15. 난 내 자식이 아니니 엄마(아빠)라고 하지도마	544(86.6)	48( 7.6)	28( 4.5)	4(0.6)	4(0.6)	1.21	84(11.8)
5. 갖다 버리겠다	563(89.6)	37( 5.9)	19( 3.0)	4(0.6)	5(0.8)	1.17	65(10.4)
4. 때려 죽여 버리겠다	580(92.4)	25( 4.0)	14( 2.2)	4(0.6)	5(0.8)	1.13	48( 7.6)
14. 누가 잡아가 버리지	602(95.9)	18( 2.9)	6( 1.0)	1(0.2)	1(0.2)	1.05	26( 4.1)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대 행위자를 가정내로 국한시켜 아동양육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에 초점을 두었다. 언어적 학대 행위자로서, 어머니가 평균, 전체의 68.5%로 가장 많고, 아버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20.9%,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행한 경우가 0.6%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가정내 부모 중에서 아동에게 언어적인 학

대 및 신체적 학대의 잦은 행위자는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언어적 학대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표 4〉는 전술한 변인들과 언어적 학대와의

관계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4개의 변인에 의하여 언어적 학대 분산의 36.6%가 설명되었다.

〈표 4〉 언어적 학대와 관련변인과의 관계(N=604)<sup>1)</sup>

예측변인	언 어 적 학 대		
	$\beta$ eta	SE	t for HO
INTERCEPT	-5.40	2.57	-2.10*
신체적학대	1.03	.06	11.70***
연령	.60	.14	4.23***
성	-.03	.46	-.06
SES	-.07	.04	-1.55

$R^2=0.3664$ , F Value=86.751\*\*\*

\*  $p < .05$  \*\*\*  $p < .001$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각각 1.03, .60의  $\beta$ eta 값을 나타내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학대가 많은 가정일수록 언어적 학대의 발생빈도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언어적 학대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언어적 학대에 보다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신체적 학대로 나타났다( $\beta$ eta=1.03,  $p < .001$ ). 이에 반해 아동의 성과 SES는 부모의 언어적 학대를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해당하는 5가지 하위 종속변인들에 대해 5가지 예측변인들 각각의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 관련변인들의 주효과:로지스틱 회귀분석표(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604)

	아동의 위축행동		
	$\beta$ eta	SE	$\chi^2$
INTERCEPT	-.51	.24	4.57*
언어적학대	.02	.004	15.23***
신체적학대	.01	.01	2.52
성	.05	.06	.79
연령	-.04	.02	4.19*
SES	-.03	.005	30.78****
	아동의 과잉행동		
	$\beta$ eta	SE	$\chi^2$
INTERCEPT	-1.44	.23	39.32****
언어적학대	.02	.004	20.48****
신체적학대	.03	.01	12.97***
성	.13	.06	5.18*
연령	-.002	.02	.02
SES	-.002	.01	.10
	아동의 공격행동		
	$\beta$ eta	SE	$\chi^2$
INTERCEPT	-2.83	.27	111.20****
언어적학대	.03	.01	40.61****
신체적학대	.05	.01	27.64****
성	.04	.07	.44
연령	-.003	.02	.03
SES	-.003	.01	.40
	아동의 퇴행행동		
	$\beta$ eta	SE	$\chi^2$
INTERCEPT	-1.10	.23	22.28****
언어적학대	.02	.004	17.23****
신체적학대	.01	.01	1.05
성	.16	.06	7.83**
연령	-.01	.02	.16
SES	-.01	.01	2.20
	아동의 강박행동		
	$\beta$ eta	SE	$\chi^2$
INTERCEPT	-1.23	.23	29.78****
언어적학대	.04	.01	52.09****
신체적학대	.002	.01	.04
성	.24	.05	20.44****
연령	-.02	.02	1.20
SES	.01	.01	5.78*

\* $p < .05$ , \*\* $p < .01$ , \*\*\* $p < .001$ , \*\*\*\* $p = .0000$

1) SES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 중 24개 data가 missing data로 처리되어 SES를 변인으로 하는 모든 통계처리 과정에서는 최종 604명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먼저, 아동의 위축행동과 관련된 제 변인들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언어적 학대 및 아동의 연령과 SES가 아동의 위축행동을 예측하는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p < .001$ ), 나이가 어릴수록( $p < .05$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p < .0000$ ) 아동은 더 위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동의 과잉행동과 관련된 제 변인들의 주효과에서, 언어적 학대( $\beta = .02, p = .0000$ )와 신체적 학대( $\beta = .03, p < .001$ ) 및 아동의 성별( $\beta = -.13, p < .05$ )이 과잉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신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그리고 남아일수록 아동은 과잉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공격행동에서는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모두  $p = .0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은 더 공격적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퇴행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퇴행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언어적 학대가  $p = .0000$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여아일수록 퇴행행동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beta = .16, p < .01$ ). 그리고 언어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beta = .04, p = .0000$ ), 남아보다는 여아가( $\beta = .24, p = .0000$ ),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beta = .01, p < .05$ ) 아동의 강박행동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하위 변인인 ‘위축’, ‘과잉’, ‘공격’, ‘퇴

행’, ‘강박’, 이 5가지에서 언어적 학대가 모두  $p = .0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신체적 학대는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일수록 과잉행동에서 의미있는 예측력을 보였으며, 여아일수록 퇴행행동과 강박행동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위축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위축행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강박행동이 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은 언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신체적 학대가 어느정도 관련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표 5>의 결과로는 이 문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 정도에 따라 아동을 집단화한 후 함수로 표현되는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을 이용하면 신체적 학대 각각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언어적 학대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28명 대상 아동의 신체적 학대 응답 점수에 따라 신체적 비학대 아동과 신체적 輕度학대 아동 그리고 신체적 重度학대 아동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부적응행동을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언어적 학대의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먼저 신체적 학대의 3수준에 따른 대상아동은 <그림 1>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이러한 신체적 학대의 3수준(비학

빈도	한번도 없었다	1년에 1번	1년에 2-6번	1달에 1-3회	1주일에 1-3회
1번	비학대 아동	輕度 학대 아동 321명(51.1%)			
4번					
5번	81명 (13%)	重度 학대 아동 226명(36%)			
15번					

〈그림 1〉 신체적 학대수준에 따른 대상분류

대:NO, 輕度 학대:Light, 重度:Heavy)에 따른 언어적 학대와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를 로지스틱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그래프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의 양이 증가할수록(가로축),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의 가능성(세로축)이 증가한다.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아동의 공격 행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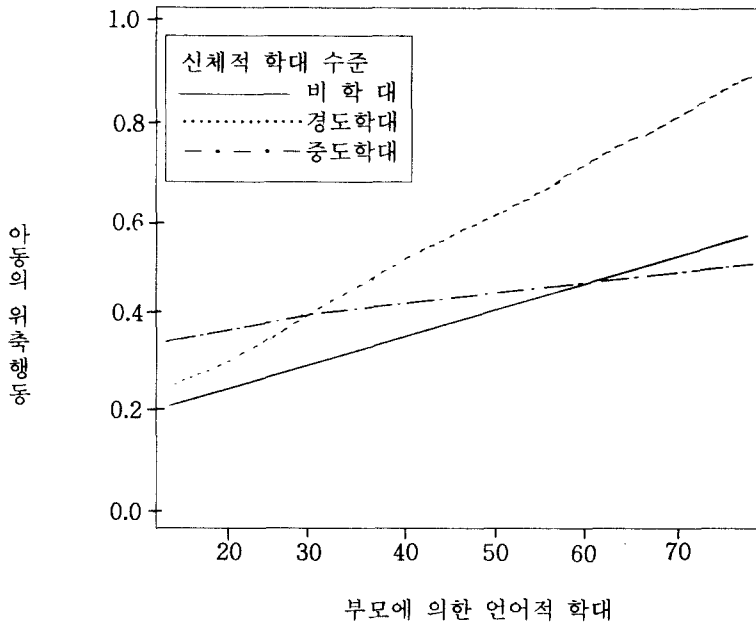
두번째로, 각각의 그래프는 언어적 공격의 영향이 신체적 공격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래프의 모든 기울기가 상승한다는 것은 부모들이 신체적으로 학대적이건 비학대적이건 간에 상관없이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번째로, 공격행동을 제외한 모든 부적응 행동에서, 신체적으로 輕度の 학대를 받은 아동의 회귀선이 그래프의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같은 수준의 언어적 학대를 받았을 때, 신체적 비학대 아동이나 重度학대 아동에 비해 보다 높은 정서적 부적응행동 발생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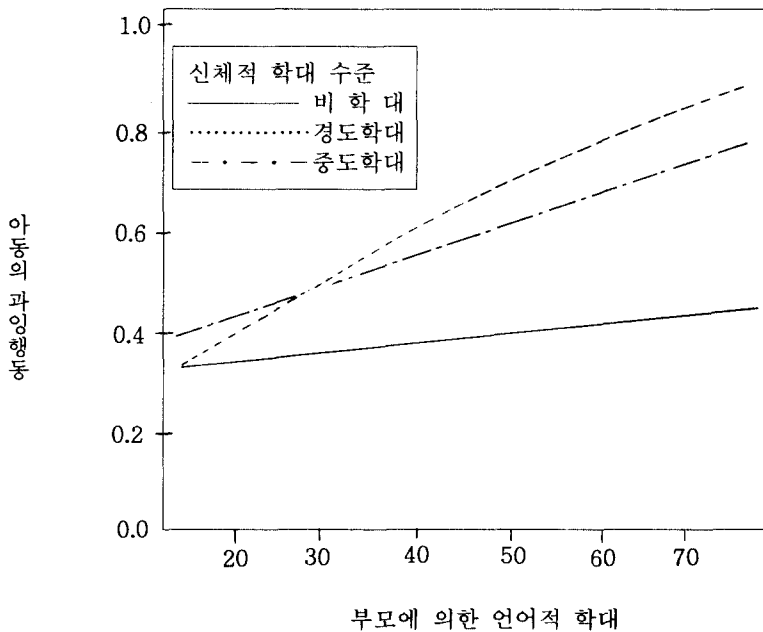
각각의 그래프는 또한 부모에 의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의 영향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 ‘위축’, ‘과잉’, ‘강박’에 있어서는 비학대 아동집단이 그래프의 회귀선 중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울기의 증가량도 그리 심하지 않다. 즉 신체적으로 輕度 학대 혹은 重度 학대 대상아동보다 신체적으로 비학대 대상아동의 경우에는 언어적 학대의 효과는 비교적 약하다. 반면 ‘공격’과 ‘퇴행’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비학대 대상아동의 회귀선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즉, 공격과 퇴행적 행동에 있어서 언어적 학대의 효과는 신체적 학대를 사용하지 않은 부모에게 있어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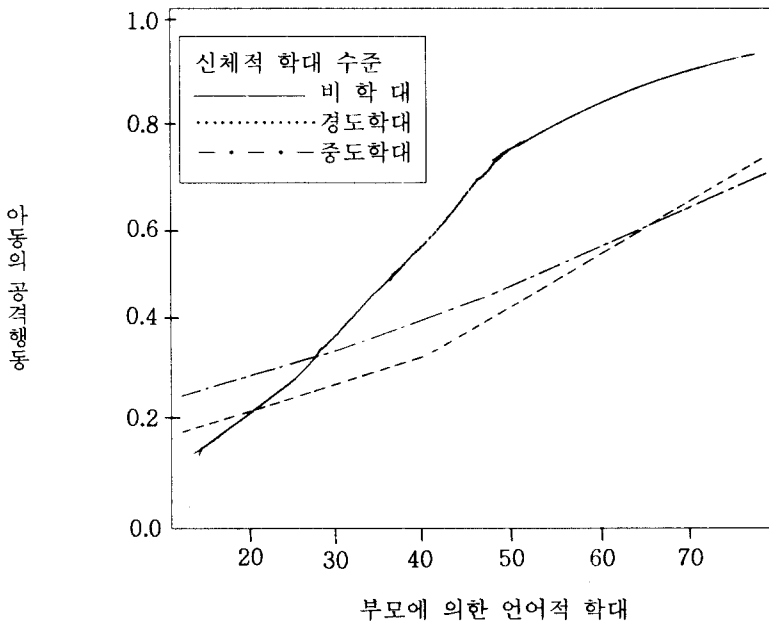
둘째, 공격을 제외한 모든 부적응행동에서 신체적으로 輕度の 학대 아동보다 重度的 학대아동의 그래프 곡선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체적 학대의 輕重에 따른 부적응 행동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와의 복합적인 영향을 보고하는 Straus(1991)의 결과와 상충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와의 일관된, 복합적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퇴행의 경우 신체적으로 重度 학대 아동이 제일 아래 위치하며, 기울기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고, 위축의 경우 역시 기울기가 거의 수평에 가깝다. 이는 신체적 重度的 학대 아동에게서는 퇴행과 위축을 설명하는데 있어 언어적 학대의 효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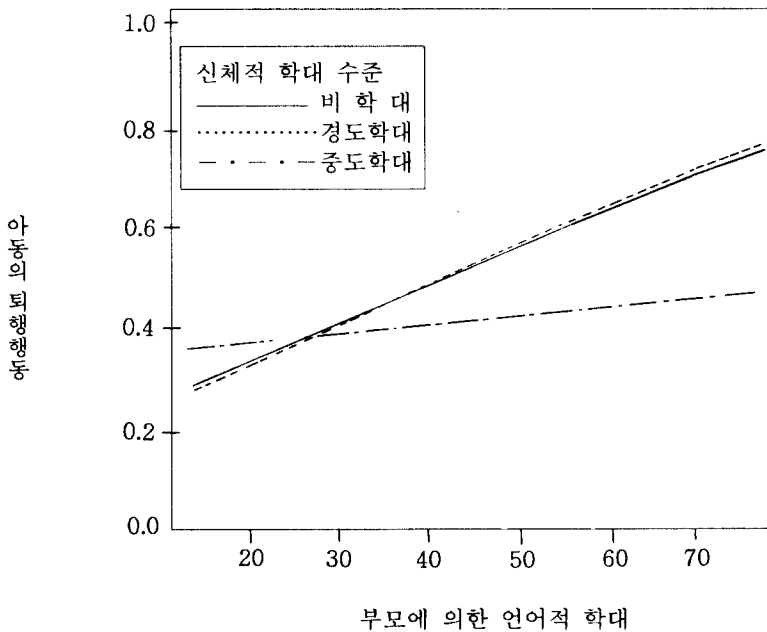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아동의 위축행동 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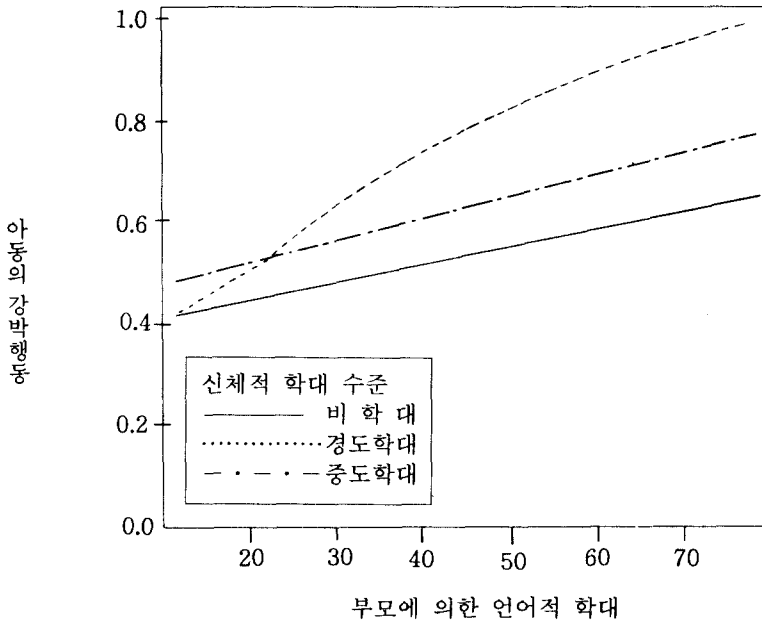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의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아동의 과잉행동 발생 가능성



〈그림 4〉 부모의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아동의 공격행동 발생 가능성



〈그림 5〉 부모의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아동의 퇴행행동 발생 가능성



(그림 6) 부모의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아동의 강박행동 발생 가능성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비신체적 학대 즉, 정서적 학대 영역에 포함되는 언어적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와 관련이 있는 변인은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와 아동의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학대가 많은 가정일수록 언어적 학대의 발생빈도 역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Straus(199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언어적 학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때 방어할 힘이 있는 신체적으로 성

숙한 자녀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고성혜, 1992)을 어느정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및 아동의 성과는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와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일반아동의 경우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신영화, 1986; 고성혜, 1989). 하지만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언어적 공격을 더 많이 받았다는 Straus(1991)의 보고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일반 아동집단에서 하류층

아동이 중·상류층 아동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다는 신영화(1986), 노치영(1988) 등의 보고와 비교해 볼 때, 언어적 학대의 발생은 신체적 학대와는 달리 모든 계층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둘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을 설명하는 제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및 강박행동 모두에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가장 큰 주효과로 작용하는 변인이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변인이 언어적 학대라고 보고한 연진영(199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는 위축행동과 퇴행, 강박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위축에 있어서는, 권자영(1991)의 연구 결과 즉 “신체적 학대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신체적 학대의 영향과 혼동될 수 있는 언어적 학대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반면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는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류층에 속하는 가정에서 양육받은 아동들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정서적 부적응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편견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아동양육에서 부모의 역할 및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체적 학대 수준 별로 3집단 분류를 통해 각 집단 별로, 언어적 학대가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가 심한 아동일수록 신체적 학대의 유무, 혹은 輕重에 상관없이 모두 정서적 부적응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정서적 부적응행동 유형에 따라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와의 관계 및 그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위축, 과잉, 강박에 있어서는 언어적 학대에 따른 부적응행동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은 아동보다 학대 아동의 경우에 더욱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언어적 학대의 주효과 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설명해주는 부분으로서, 언어적 학대 한가지만 경험하는 것보다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위축, 과잉, 강박행동과 더욱 밀접히 관련 지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외, 공격과 퇴행의 경우, 비학대아동 집단이 언어적 학대에 대한 민감한 효과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의 복합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공격과 퇴행행동 발생가능성을 볼 때 비교적 신체적 학대와는 독립적으로 언어적 학대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지의 사용으로 인해 학대사실이 왜곡,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의 행동관찰, 사례연구나, 면접법 등을 통한 질적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이 시



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병리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주로 다루고 있어, 학대하는 부모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부모의 학대 행동을 유발하는 아동의 기질 및 인성 등의 심리적 변인을 탐색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관련된 변수를 포함시켜 아동학대의 발생기제에 대한 설명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언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 매우 관련이 높으며, 신체적 학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방향제시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내 부모역할 및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고복자 (1992). 아동 구타의 발생률 조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3(1), 56-72.
- 고성혜 (1992). 아동학대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권자영 (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광일 (1989). 가정폭력. 서울:탐구당.
- 김연화 (1989). 사회계층과 학부모의 교육적 기대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준 (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혜영 (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가출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비교.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영화 (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정 환경에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동현, 홍강의 (1989).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현황. 정신건강연구, 6, 53-65.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주영희 (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연구. 사회복지, 80, 71-133.
- 최윤라 (1988).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 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하정희 (1993). 학대적 가정환경과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력간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Alvy, K. T. (1975). Preventing child abuse. American Psychologist, 30, 921-928.
- Bousha, D., & Twentymen, C. (1984). Mother-child interactional style in abuse, neglect, and control groups: Naturalistic observations in the h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06-114.
- Claussen, A. H. & Crittenden, P. M. (1991).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Relations Among Type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15, 5-18.
- Creighton, S. T. (1988). Quantitative assess-

- ment of child abuse. In Child abuse, P. Maher(ed.), Oxford: Basil Blackwell.
- Egeland, B., Sroufe, L. A., & Erickson, M. (1983). The developmental consequence of different pattern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7, 459-469.
- Gil, D. G. (1981). Unraveling child abuse. in J. V. Cook & R. T. Bowles(ed.). Child Abuse-commissions and omissions. Toronto: Butterworth Company, 119-128.
- Gilmartin, B. (1985). Some family antecedents of severe shyness. Family Relations, 34, 429-438.
- Hoffman-plotkin, D. & Twentyman, C. T. (1984). A Multimode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794-802.
- Justice, B. & Justice, R. (1976). The Abusing Family.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Kempe, H. & Helfer, R. (1974). The battered child. 1st.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 (1962). The battered-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 17-24.
- Kinard, E. M. (1979).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abuse for the child. J. of Social Issues, 35(2), 82-100.
- Kirt, S. A. (1972).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2n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Mario, D. T. (1983). Injur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Children, 31, 147-152.
- Martin, M. J. & Walters, J. (1982). Familial correlates of selected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267-276.
- Murphy, C., & O'Leary, D. K. (1989). Psychological aggression predicts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 579-582.
- Nej, P. G. (1987). Does verbal abuse leave deeper scars: A study of children and par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2, 371-378.
- Reinert, H. R. (1976). Children in conflict. St. Louis: Mosby Co.
- Stern, C. (1988). The recognition of child abuse. in P. Maher(ed.), Child Abuse. Oxford: Basil Blackwell, 35-3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1, 75-88.
- Straus, M. A. (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238.
- Straus, M. A. (1992).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992 May), 346-357.